

전북 산업 '다이어트'



전북 제값 받는다

전남 10년새 생산량 158% 급증...가격은 절반 가량으로 하락
도, 전북양식업 폐지 등 구조조정...과잉생산 막고 경쟁력 제고

전북 양식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과잉 생산과 반복되는 흉수 출하 등 비대해진 '전북 양식 다이어트'를 과감히 추진, 적정 여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격 안정화에 나서 어민들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북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전북, 이리다 탈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수산 경제를 이끄는 핵심 품종인 전북 생산량(2만 4000 t)을 20% 감축하는 양식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3년 전부터 시설 자동화, 가공·유통의 첨단화,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전북산업 육성 정책 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전북은 지난 2023년 한 해 생산액(5357억원) 기준 지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수산업 경제를 이끄는 핵심 품목이다.

하지만 양식 시설 확대와 우량 종자 생산으로 인한 출하 시기가 단축되면서 생산량이 늘고 흉수 출하가 이어지면서 전북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어민 소득 감소 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2013년만 해도 9282 t 수준이던 전북 생산량의 경우 2023년에는 2만 4002 t으로 무려 158%나 급증했는데, 우량 종자 생산 등으로 4~5년 걸리던 양식 기간이 2~3년으로 줄면서 출하 시기가 단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북양식업이 호황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양식 어가도 늘고 시설 기준 완화 등으로 가두리 양식 시설이 확대된 점도 무관하지 않다.

63만 칸(2013년)이던 양식 규모는 5년 만에 95만 칸(2018년)으로 늘더니 지난 2023년에는 107만 칸까지 늘어났다.

생산량이 늘고 흉수 출하가 이어지면서 산지 가격은 급락했다. 2013년 1kg당(10마리) 5만 1167원이던 산지가는 4만 233원(2018년)→2만 8174원(2023년)까지 떨어졌다.

◇고강도 다이어트로 경쟁력 강화=전남도가 ▲시설 감축(9만 5000칸) 및 제도 개선 ▲품종 전환 ▲전북양식업 폐지 ▲양식 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북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 오는 2030년까지 현

재 2만 4000 t인 생산량을 2만 t으로 20%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선언한 나온 배경이다.

우선, 시·군과 공동으로 30억원을 투입,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을 지원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시설(1만 5000칸)을 자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국비(240억) 등 300억원을 마련해 잦은 재해 발생 해역에 조성됐거나 생산성이 악화된 어업권을 축소하면서 폐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7만 5000칸을 줄인다. 무면허 가두리 시설(5000칸)에 대한 강제 철거도 진행한다. 이렇게하면 양식면적 259ha가 줄어들게 된다.

전북을 키우던 면적(144ha·5만 칸)을 개체 굴, 해조류(전북먹이용)를 생산하는 양식 면적으로 전환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9년 진도 일대에 조성된 전북양식업(양식단지)도 폐지한다.

전북양식업은 양식 규모·기업화를 통한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대규모 양식단지, 국비(76억) 등 180억원을 들여 전북가두리40ha(5244칸), 해조류양식장 131ha(3471줄) 등을 갖췄지만 코로나 이후 수출 실적이 전무해 조성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양식업에서 생산된 전복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다만, 양식시설·어민들이 남아있고 국비가 투입된 점, 해양수산과학원이 운영을 진도군수협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 등과 용도 전환, 대안 등을 논의한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양식장을 재배치, 양식 환경을 개선하고 양식 산업발전법상 1ha당 347칸인 전북 가두리 시설 기준을 312칸으로 개정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북은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대표 양식품종으로 전북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완도(2561어가)를 비롯, 진도(234어가), 신안(164어가) 등 3441어가에서 양식면적 6195ha에 걸쳐 2만 4000 t(생산액 5357억원)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지역 골목 경제 살리기 안간힘

지역화폐 확대·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 등 5개 정책 추진

전남도가 극심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확대,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 등 민생경제 5대 지원 정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10%로 확대하는 정책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3월까지 3개월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소비시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시·군과 각각 175억 원씩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2만 여개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고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당초 5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4500억원,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배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남도 이차보전율은 기존 2.0~2.5%에서 2.4~2.9%로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3.0%를 유지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배달업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떡까비)과 상생배달앱(뽕겨요)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3000원 상당의 배달비 지원 쿠폰도 지급한다.

전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선결제 방식을 통해 지역 상점의 매출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선선(善-先)결제 캠페인'도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민생경제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이 체감할 경제회복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생활체육 준비상황 점검 명칭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4일 도청 사재실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2차 집행부 준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예비 귀어인 모이세요,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예비 귀어인들이 어촌 정착에 필요한 정책부터 실질적인 어업 현장까지 습득할 수 있는 '제12기 전남귀어학교 과정' 교육생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기술교육으로,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어 희망자이며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7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및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3월 4일부터 8주간 강진지원과 도내 우수 선도어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월 대보름 대축제 7~8일 개최

도농업박물관·영산호관광지 농업테마공원 일대

'정월 대보름 민속 대축제'가 오는 7일부터 이틀 간 전남도농업박물관과 영산호관광지 농업테마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달집태우기는 달이 떠오를 때 원추형의 대나무 달집에 불을 지르고 불꽃이 타오르면 농약을 치면서 달집 주위를 함께 돌며 노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손꼽힌다.

농업박물관의 달집태우기는 전남 서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보름 행사로, 미리 제작한 10m 높이의 달집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소원지를 태워 한 해 소망을 기원한다. 또 지신밟기와 줄다리기, 풍물놀이와 소원 글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

정월 대보름 민속 대축제 첫날에는 민속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남도 전통 민속놀이의 현대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포럼도 열린다. 학술포럼 뒤에는 기관 간 관련 업무협약으로



전남 전통 농경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향성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농업박물관은 대보름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선착순으로 부림을 무료로 나눠주고 오곡 주먹밥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착안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비 청년 농업인 모집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접수

농협중앙회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5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작목별(딸기, 토마토, 엽채류) 30명씩 90명을 모집, 교육할 예정이며 45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작목별로 각각 운영되며 ▲입문(농업기초·농협의이해) ▲중급(작목별 이론, 선도농가실습) ▲고급(사업계획서·창농준비) 과정으로 나뉘어 4개월 간 400여 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딸기반은 3월 7일까지, 토마토반 3월 21일까지, 엽채류반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